

새해인양이
10월 10일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2016 | 겨울호

<http://www.hadong.go.kr>





신 · 년 · 사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군민만 떠올리면 힘이 생깁니다.
군정만 생각하면 좋은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이유 묻지 않고
오롯이 군민만 위해 달려온 2015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힘찬 열정으로 마음 모아주신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100년 미래를 위해
2016년 새해에도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겠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간으로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50만 내외 군민과 더불어 희망을 노래하며
경쾌한 행진으로 혁신과 변화를 약속드립니다.

더 살맛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날갯짓입니다.

거친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폭풍을 타고 더 멀리 날아가는 알바트로스처럼
더 큰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힘들수록 따뜻하고 힘이 나는 한해를 위해
안정적 농업기반, 혁신적 산업기반, 창조적 관광기반으로
군민이 꿈꾸는 행복스토리를 엮어가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고
합니다.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소리를 내되
누구하나가 튀어서는 안 되고
나 하나쯤 하는 마음에 소리를 내지 않아서도
안 되는 합창단의 밸런스처럼
각자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감동을 주는 하모니가 만들어 집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군정
감동을 주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군민들입니다.

군민들의 진심을 알기에
군민들의 따뜻한 응원에 힘이 나기에
늘 군민 곁에서 든든한 군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미래가 열려있는 곳
군민의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곳
더 크고 더 힘차게 큰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하동의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사람의 체온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1년 365일
군민감동이 높아지고
군민행복이 누적되어
군민사랑이 올라가는
면역력 100% 하동군정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 첫날 하동군수 윤상기

Contents

- 행정.....2면
- 이슈10면
- 의회13면
- 읍면14면
- 알림16면

- 발행처 : 하동군
- 발행일 : 2016년 겨울호
- 편 집 : 기획감사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전 화 : 055) 880-2045
- 팩 스 : 055) 880-2019
- 홈페이지 : www.hadong.go.kr

하동군 공직자 종합청렴도 좋아졌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대비 1등급 향상...올해 1등급 목표

하동군의 2015년 청렴도가 전년대비 1등급 향상돼 전국 82개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2등급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5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외부를 합한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8점으로 나타나 2등급으로 측정됐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주민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공공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하동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에서 9.11점을 받아 1등급, 외부청렴도에서 7.45점을 얻어 3등급으로 종합 2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년 3등급(7.37점)보다 1등급 상승한 것으로, 함안군에 이어 도내 군부에서 합천·산청군과 함께 2등급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한해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군은 연초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펴왔다.

군은 이의 일환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문화 확산 △공직기강 확립 등 3대 분야 28개 시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세부 시책으로 민간암행어사제도 운영,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전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 등과 함께 군청 전 간부공무원의 청렴 워크숍을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주도해 왔다.

한편, 군은 지난해 2등급의 여세를 몰아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 시스템 정착 △청렴의식 개혁 △공직기강 확립 등 3개 분야 27개 세부시책을 골자로 하는 '2016 반부패·청렴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해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펴기로 했다.





새해 사람중심의 경제 살리기 올인

윤상기 군수, 2016 군정방향시정연설 ... 시장 · 농업 · 서민 경제 활성화 총력

하동군은 새해 군정방향을 ‘사람중심의 경제 살리기’로 잡고 시장경제 · 농업경제 · 서민경제 · 관광산업 활성화에 총력전을 벌인다.

윤상기 군수는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군정 추진방향을 밝혔다.

윤 군수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6개월은 100년 미래를 위해 새 틀을 짜고 재도약의 터를 다졌다면 앞으로는 내용을 더 알차게 채우고 본격적으로 비상해야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시간을 돌아해보면 알프스 하동의 미

래를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확 바꾸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고쳐나가면서 집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로, 대도시로 발로 뛰며 투자유치와 농 · 특산물 판매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농어촌의 삶의 현장과 어려운 계층을 방문해 군민이 원하는 진정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화스토리 발굴과 관광상품 개발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달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완전 개방과 기후변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새해 국내경기

의 불투명한 전망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면서 하지만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자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윤 군수는 새해 군정 중점 추진방향을 ‘경제 살리기’로 삼고 민선6기 5대 분야 67개 정책과제에 시장경제, 농업경제, 서민경제 활성화가 고루 투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창조경제 기반마련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갈사만 산업단지 정상화는 물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구축하고, 대규모 복합산업단지인 대송산업단지를 현실화하며, 두우레저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애버딘대 캠퍼스 개교와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통해 MBA(경영학 박사)를 포함한 145명의 학생과 영국 본교 교수 및 연구진, 산업체 근로자 300여명을 유치해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교육기반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산대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공대 기술연구소 공동 R&D 센터 설립 등 해양플랜트 연구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해양플랜트 중심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군수는 또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인 농업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면 전통농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 640만 달러에 그친 수출규모를 2014년 1240만 달러, 2015년 2000만 달러에 이어 새해는 2500만 달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지역농협과 머리

를 맞대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전통차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청정 녹차 확대 재배와 녹차박물관 설치, 유명인사의 다인기념관 유치 등 역사자원과 기본에 충실한 6차 농업 인프라 확충에도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윤 군수는 농업경제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동관광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한 켄싱턴·비바체 리조트 개장에 이어 길과 길, 산과 강 그리고 바다를 하나의 트레킹으로 이어나가면서 휴양과 어드벤처가 접목된 동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셜 토지마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제2 최참판댁, 문전성시를 이룰 화개장터 옥화주막 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 창의도시 가입 추진 등 문화수도의 명성을 이어나갈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핵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306세대의 국민임대주택과 498세대의 공동주택 건립, 도시가스 공급, 하동시장 현대화사업 등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군민의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현장행정과 소통·공감행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권한과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 군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하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상상과 현실 융합한 100년 미래 초석 다지다

2015년 하동군정은...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 · 관광 · 부농 인프라 구축

윤상기 군수는 2015년 신년사에서 꿈과 현실, 상상과 기적이 융합하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하동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분야가 융합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는 융합시대에 안팎의 변화는 물론 과감한 한계 돌파를 통한 혁신행정으로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 담긴 갈사만의 융합형 산업화를 통해 100년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다시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농 · 특산물의 판로 개척, 군민이 행복한 복지 군정 실현, 잘사는 농촌, 깨끗하고 안전한 하동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하동군 600여 공직자는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는 윤 군수의 군정철학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심 없이 달려왔다.

첨단기업 및 투자 유치에 위해, 농 · 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보다 많은 국내 · 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로 해외로 발로 뛰며 현장행정을 펼쳐왔다.

그 결과 미국 · 캐나다 · 동남아 등 세계 곳곳으로 지역 농 · 특산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500만 관광시대를 열기도 했다.

창조경제 조성

농업 위주의 전통적 경제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동군은 지난 1년 동안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100년 먹거리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농업회사법인 신푸드코리아를 비롯해 (주)정가진 바이오밸리 하동, 자원순환기술을 대규모로 실용화한 국내 1호 기업 하동광물섬유 유치가 성공했다.

100년 미래의 먹거리의 핵심 프로젝트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는 시공사와의 정산 절차를 통해 가능한 조기 공사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우레저단지도 201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갈사 산단에는 민간사업자인 (주)이코너지와 조력 및 풍력발전 터빈제조공장과 바이오메스 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이 체결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착공과 더불어 읍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배관설치 공사가 시작됐으며, 2016년 말 가스가 공급되면 가정 연료비 절감과 지역 경기 활성화,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행복한 복지군정

군민이 행복한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섬세한 배려로 군민 감동 행정을 펼쳤다.

군청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도 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100원이면 갈 수 있는 행복택시 운행, 취 · 창업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 아이템 발굴 등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출산을 제고와 임신부의 편의를 위해 외래산부인과를 개원하고, 100세 시대에 맞춰 노인대학원을 개설 · 운영하는 등 군민



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하동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밖에 재가장애인 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복공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전통예절교육 캠프, 후학사랑 장학기금 확충 등 다양한 시책에서 성과를 냈다.

웰빙과 힐링조경

2015년은 500만 관광시대 개막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천혜의 자연절경과 수많은 관광명소,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다양한 축제, 관광 인프라 확대가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됐다.

알프스 꽃길걷기대회와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대회, 하동시장 3색 3맛 시장 등 다양한 문화관광 및 시장 활성화 시책을 펼쳐 수많은 관광객을 모았다.

화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극복한 화개장터 복원 개장과 조영남 갤러리는 세간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으며, 화개장터 복원 개장과 함께 열린 벚꽃축제가 새삼 주목 받은 해이기도 했다.

맛있게 즐거운 옥중 딸기마을 체험축제, 가을 코스모스·메밀과 더불어 세상을 빨갛게 물들인 북천 꽃양귀비 축제 등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상은 군민의 자랑이었다.

기존의 여름축제 3개를 통합한 제1회 섬진강재첩축제는 여름 대표 힐링·관광축제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으며, 국내 최초 탄소없는 마을 선포식은 국내 최고의 에너지 문화 융합관광단지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지리산 청학동의 비바체리조트에 이어 화개동의 켄싱턴리조트가 잇달아 개장하면서 열악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는 성공적인 관광인프라로 평가 받았다.

‘왕의 농작’의 청와대 납품에 이어 하동



전통차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6호)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동 녹차산업의 명성을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2017년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호리병 속의 별천지’ 언급 이후 전세기를 통해 중국 유거 300명이 하동을 관광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2만 3000여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잘사는 농촌 부자조경

기업·관광산업 투자유치와 함께 국제교류 및 농수특산물 수출 확대 등 ‘글로벌 시티구축’을 위해 ‘기업인의 방’을 설치하는 등 잘사는 농촌 실현에도 성과를 이뤘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수출 나라와 품목이 다변화한 가운데 우수 농수산물의 북미 세일즈에서 현지 바이어와 3820만 달러어치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불편을 덜고자 동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개소하고, 옥중면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농업 환경도 크게 개선했다.

알프스 푸드마켓은 지역 농·특산물 유통센터이자 수출시장 개척을 구동하는 마케팅 비즈니스센터로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시장 발굴을 통해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목 확대,

생산과 가공, 관광·체험이 융합하는 6차 산업화, 가축전염병 제로화를 위한 가축종합방역소 설립 등 부자농촌 구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성과를 냈다.

안전하고 깨끗한 조경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가동돼 각종 사건·사고 예방은 물론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도농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상습침수 지역의 배수로 개선사업을 비롯해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주택밀집지역의 생활도로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도 눈에 띈다. 군은 2015년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국고예산도 전년 1277억원 대비 5.8% 상승한 1351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0건에 739억원에 달하는 각종 공모상,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도시브랜드 대상,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종합 1등급 향상, 농수산물 수출 시책 평가 최우수 등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성과지표로 평가 받았다.

알프스 하동 100년 미래 밑그림 나왔다

2030년 목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3단계 비전 제시

2030년 인구 16만명 연간 방문객 767만명을 목표로 하는 알프스 하동의 100년 미래 밑그림이 나왔다.

하동군은 지난해 말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용역기관인 창원대학교와 한국자치제도평가원(KSA) 연구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대한민국 대표 청정도시,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 대한민국 대표 복지공동체,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 건설을 통한 번영과 미소의 땅 알프스 하동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목표연도 인구는 최근 인구 데이터 추이를 반영한 인구모형 추정치와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사회적 증가, 주거지역 확충·타운개발 등 기타 요인 등을 감안해 15만 9000명으로 설정됐다.



계획의 역점 목표로는 △하동의 색깔·느낌·향기·맛의 지역 마케팅 △관광 인프라의 혁신적 구축 △군정의 세계화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군민 수요의 충실한 반영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확보 등 6대 방안을 내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적 기반 구축을 비롯해 문화·관광·역사 기반 구축, 사회복지 공동체 및 선진교육 기반 조성, 인프라 및 지역발전 기반 건설 등 부문별 계획을 제시하고, 세부 발전방안과 주요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용역기관은 앞으로 2020년, 2025년, 2030년 등 3개 단계별 사업계획 추진을 통해 목표연도인 2030년 국내·외 방문객이 연간 76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군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 군의회 및 알프스 하동 정책연구단 자문 등을 거쳐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2016년 2월 20일까지 과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상기 군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2030년까지 하동군이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하동군의 정체성과 강점을 최대한 반영해 100년 이상의 파급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권역별 개발 계획

- 화개·악양·청암면 등 지리산 일원의 북부 산악 관광권
- 역사와 문화, 관광 중심의 ‘**휴양의 장**’
- 하동읍·적량·고전면 등 서부 섬진강 생활권은
- 행정과 정보, 주거 중심의 ‘**정주의 장**’
- 횡천·양보·북천·옥종면 등 동부 생활 관광권
- 관광과 산업, 주거 중심의 ‘**활력의 장**’
- 진교·금남·금성면 등 남부 해안권
- 산업과 물류, 해양 중심의 ‘**도약의 장**’





하동 왕의 녹차 · 야생차밭 미국 방송 탔다

미국 NBC '1st Look' 캣 그린리프 · 임태경...수제차 제조 · 다례체험 등 전역 방영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대표 관광명소와 대표 특산물인 하동녹차가 지난해 11월 주말 황금시간대에 미국 전역에 전파를 타는 NBC TV에 방영됐다.

세계 곳곳의 음식 · 패션 · 여행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인기프로그램 '1st Look(퍼스트 룩)'에 왕의 녹차와 화개골 야생차밭, <토지>의 무대 평사리 최참판댁이 소개된 것.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 오후 7시 30분 프로그램의 첫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오고, 지도 남쪽 끝에 'HADONG(하동)'이라는 지명이 떴다. 곧이어 배경음악이 깔리고 화개골을 뒤덮은 짙푸른 야생차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화면에는 드넓은 차밭 한 가운데 노랑머리를 질끈 묶은 가벼운 옷차림의 NBC 메인 호스트 캣 그린리프(Cat Greenleaf)와 국내 최정상 뮤지컬배우 임태경이 등장했다.

TV의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되는 에미상 수상자 캣 그린리프와 임태경은 현장을 찾은 쌍계제다 김동곤 명인으로부터 하동 녹차의 향과 맛, 찻잎 따는 법, 제다법, 하동녹차의 우수성 등을 소개 받고 찻잎 따기 체험을 시작한다.

차밭을 옮겨 다니며 연방 돌아난 새싹을 따서 바구니에 담던 그린리프는 자기보다 많이 딴 임태경의 바구니와 슬쩍 바꿔치기 하는 코믹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렇게 채취한 찻잎을 가지고 인근 차체험관으로 이동한 이들은 250~300℃로 달궈진 무쇠 솥에 찻잎을 넣어 덥고 비비고 말리는 전통 수제차 제다과정을 체험한다.

직접 수제차를 만든 이들은 소설 <토지>의 무대 약양면 평사리 최참판댁으로 이동해 소설 속 최치수가 황금물결로 넘실대던 평사리들판을 내려다보던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다례체험을 한다.

가벼운 차림으로 찻잎을 따고 수제차를 만들던 그린리프와 임태경은 제법 잘 어울리는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다례지도사로부터 물을 달이고 차를 따라 마시는 다례교육을 받은 뒤 배릿한 차의 맛과 향에 빠져든다.

‘1st Look’은 이날 대한민국 차 시배지이자 그 자체가 절경인 국내 최고의 야생차밭을 미국 전역에 소개하며 하동 차의 우수성을 자국민에

게 어필했다.

이날 방송된 프로그램은 같은 해 10월 이틀간 카메라·매니저 등 스태프 17명이 현지 촬영한 것으로, 스태프들도 하동의 아름다움에 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스태프들은 SNS 등을 통해 하동의 아름다운 절경과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주변에 알리고, 방송국 관계자들과 함께 다시 하동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군은 왕의 녹차 홍보와 관광 증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의 남쪽 작은 도시 알프스 하동의 절경과 하동차를 미국 전역에 소개함으로써 녹차 수출과 미국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참판댁 별당 연못 ‘사랑의 동전’ 어디로?

별당 연못 · 야무네 복덩이바위에 던져진 동전 180만원 수거 이웃 돕기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하동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별당 연못에 사랑의 동전 한 두 개쯤은 던져봤을 듯하다. 특히나 젊은 연인이라면 더욱 그랬을 터다.

<토지> 속 별당아씨에 이어 딸 서희가 거쳐하던 별당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의미의 천원지방(天圓地方)의 기운이 담긴 멋스런 연못 하나가 있다.

땅을 닮은 사각의 연못 한 가운데는 고고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는 둥근 모양의 섬 앞 연못 속에 동전을 던지며 사랑과 소망,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동그란 절구통이 놓여 있다.

아름답고 신비한 진달래 꽃 같은 별당아씨를 연모한 구천의 마음과 구천을 향한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녹아 있는 별당아씨의 연못이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현실적인 신분의 벽을 극복하고 사랑의 연을 맺은 스토리 때문일까.

최참판댁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 이곳 연못에 동전을 던지며 사랑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어지면서 동전이 하나 둘 쌓여갔다.

연못 속에 돌로 만든 절구통이 놓인 2014년 7월 이후 1년 반 동안 쌓인 동전은 자그마치 157만 5010원. 군은 얼마 전 동전을 모두 수거했다.

여기다 최참판댁 인근 토지마을 야무네에 있는 ‘복덩이 바위’에도 관광객들이 동전과 지폐 등을 놓아 돌을 합친 돈이 총 180만 6960원.

군은 이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골고루 나눠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연못에 동전 던지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스토리텔링 공간이 마련되면서 최참판댁의 또 다른 재미거리가 되고 있다”며 “모인 동전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임시·정례회 10회 82일 회기 운영

2016 의회운영 기본계획 확정...임시회 8회 · 정례회 2회 개최

하동군의회(의장 김봉학)는 새해 임시회·정례회 10회에 총 82일 회기의 2016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새해 의회운영 계획에 따르면 신년회와 읍·면정보고회 등 각종 신년행사가 치러지는 1월과 하계휴가기간인 8월을 제외한 10개월간 매월 평균 한 차례 총 10회 82일 회기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한다.

첫 임시회가 열리는 2월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과소별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3월에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4월과 5월 임시회에서는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시회와 정례회가 연이어 열리는 7월에는 임시회에서 제7대 하반기 원을 구성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실과소별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9월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10월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현장점검, 11월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2월에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또 각 회기별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현안에 따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새해 의회운영 계획은 올 한해 의회운영의 기본 골격을 짠 것으로,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동 이명산에 편백 氣 받으러 오세요

양보면 서재마을 뒷쪽 이명산 시루봉 자락에 편백 숲 조성 완료

‘하동군 양보면 이명산 시루봉(계봉) 자락에 향균물질 피톤치드를 다량 발산하는 편백 기(氣) 받으러 오세요.

하동군은 정영의 전 재무부장관 부친이 장관의 출생 기념으로 편백나무 100여 그루를 심어 편백 숲을 이룬 이명산 시루봉 자락에 지난해 7월 1차 편백 숲 조성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0만여㎡ 규모로 조성된 이곳 편백 숲에는 숫나무 ‘편돌이(편백나무)’와 암나무 ‘삼순이(삼나무)’ 주변에 데크를 설치해 신선한 기(氣)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숲길과 지압길 등을 만들어 힐링하는 숲길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기존의 편백 숲 주변에 5년생 편백나무 6000그루를 추가로 심고 숲길과 편백데크, 생태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완료함으로써 누구나 편리하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지리상으로 진교면 월윤리에 속한 편백 숲은 양보면사무소에서 5.6km, 양보면 서재마을에서 1.3km 거리의 이명산 시루봉 500m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산림욕뿐만 아니라 이명산 등산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방문객을 위해 부지사용을 선포 허락해 준 정영의 전 장관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누구나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 생활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편백 기를 듬뿍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편백나무는 자연치유의 향균물질인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어린이들의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종 해충이나 곰팡이의 살균작용은 물론 편백나무 향이 중추신경계를 자극시켜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을 줘 숙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남면 대도마을 풍어기원 선창굿 열어

하동군 금남면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대도마을 선착장 일원에서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창굿 행사를 가졌다.

대도마을 선창굿은 섬진강 하구의 대사주 지역을 이용해 김 양식을 하던 시절 양력 10월경 김 풍작을 기원하는 갯제를 연데서 비롯됐다.

한때는 갯제(기원제)와 따로 날을 받아 산신제를 올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김 양식이 사라지면서 선창굿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날 소지를 올리면서 지난해 무사히 뱃길을 열어준 용왕님께 감사의 뜻을 올리고 올해도 풍어와 마을 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웃사랑으로 을리년 청양의 해 마무리

진교중기나눔회 후원금 150만원...부녀농악회 성금 50만원 기탁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요즘 하동군 진교면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하동군 진교면에 따르면 박영삼 진교중기나눔회 회장은 지난달 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해달라며 후원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진교면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했다.

블우이웃을 돕고자 진교중기 회원으로 결성된 진교중기나눔회는 상반기에도 200만원을 기탁해 저소득 학생 4명에게 지원하는 등 매년

300만~400만원의 후원금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진교면부녀농악회(회장 윤두남)도 평소 농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50만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윤두남 회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연말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갖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종현 면장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단체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어려운 이웃에 온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슬로시티 악양 새해 첫 귀촌가족 환영!!

2016년 첫 번째 전입 김혜란 씨 가족 4명...새 구성원 축하

하동군 악양면은 지난 4일 면사무소에서 새해 첫 번째 전입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날 성두마을로 전입한 김혜란(50) 씨로, 배우자 최인석(54) 씨와 자녀 2명이 함께 슬로시티 악양면으로 전입했다.

김 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생활하면서 10여년 전부터 자연경관이 빼어난 악양면을 자주 왕래하다 귀촌을 결심한 뒤 이번에 성두마을에 터를 잡고 마트를 인수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악양면은 이날 환영의 자리에서 김 씨에게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전달하며 악양면의 새 구성원이 된 것을 환영했다.

조문환 면장은 “앞으로 이들 가족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이 살기 좋은 악양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에 정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 기 간: 2016. 3. 15 ~ 4. 04
- 장 소: 군청 민원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2016. 3. 15 ~ 4. 04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거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함

취약계층에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하동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취약계층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군은 하동군기관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1600세대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추진해 올해 2회째 이어오고 있다.

주택화재보험 지원 사업은 하동군을 비롯한 관내 13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작년보다 1만원 늘어난 세대당 2만원씩 지원했으며, 앞으로 1년간 화재발생시 건물 4500만원, 가재도구 1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특히 보험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민 생활불편 규제개선 과제 발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규제를 찾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규제가 있으면 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055-880-2973)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기간: 연중

○ 발굴대상

- 생애주기별규제개선 과제(출생,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 군민 생활환경 불편과제(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 복지 관련, 소음규제, 생활민원 해소, 생활체육 등)
 -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 비규제 사항(조세, 수수료, 재정지원, 단순 민원 등)은 제외

○ 발굴사례

- (우편) 수취인 부재시 우체국에 방문해야 등기우편을 찾을 수 있었으나 등기우편 배달지 주소변경으로 직장 등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절차) 출생신고 기한 완화(1→ 3개월), 혼인신고 요건완화(당사자 쌍방의 연서로 성립)

○ 의견제출처: 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055-880-2973) 및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16년 2월 28일까지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유희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품목

- 헤어리벳치, 청보리, 호밀

※ 우선순위: 친환경농업인 우선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6년 2월 28일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유기, 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제외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지원품목
 -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전 읍면 확대

새해부터 13개 전 읍면 시행...1000원 이하 소액 결제도 가능

하동군은 카드 사용 고객의 편의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군청 민원과에서 시행해 오던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전 읍·면사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읍·면사무소의 카드결제서비스는 1월 1일부터 시행돼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서 소액단위 민원발급 수수료까지 신용 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적은 금액의 수수료 결제가 어려워 난감해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청 민원과는 물론 13개 전 읍·면사무소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1000원 이하의 소액도 결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카드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군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방식 변경 추진

하동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2015~2029)’에 따라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을 2016년 탱크로리 공급방식으로 공급 후 2018년 배관방식으로 전환, 공급하기로 확정됐다.

하동읍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에 맞춘 초기 천연가스 계획물량이 산업단지 사업추진 개발 지연으로 1억 1590만㎡에서 81만㎡로 감량 공급방식을 변경해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 한시적 공급 방식인 탱크로리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군은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LNG공급방식 변경계획을 건의해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탱크로리 방식으로 공급 후 항구적인 배관방식으로 변경, 공급하기로 지난해 12월 28일 확정됐다.

군은 ‘2015년 4월 하동군과 (주)GSE의 MOU체결을 시작으로 군민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KT하동 지사-녹차아파트 1.2km구간 관로매설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12월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현재 하동읍 지중화사업과 병행해 공급배관공사와 도시가스 위성기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과 공급권역 확대를 위해 배관방식의 변경이 필요했으며, 또한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를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통해 웰빙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동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행동요령

□ 멧돼지와 직접 마주쳤을 때

- 서로 주시하는 경우에는 멧돼지의 주의를 끄는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움직임을 똑바로 쳐다본다. 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 공격할 위험이 높다.

- 가장 가까운 나무 등 은폐물 뒤로 신속하고 조용하게 몸을 피하고, 멧돼지의 주의를 끌지 말고 멧돼지의 다음 행동을 예의 주시한다.

- 공격받을 위험을 감지하면 멧돼지가 올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갖고 있는 물건(가방 등)을 이용하여 몸을 보호한다.

□ 멧돼지를 일정거리에서 발견했을 때

- 멧돼지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조용히 뒷걸음질을 하여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 멧돼지에게 돌을 던지는 등 위협 행위, 큰 소리를 내거나 손을 흔드는 등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지 말고, 절대 무리하게 멧돼지에 접근하지 않는다.

- 멧돼지는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은폐물에 신속하게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지켜본다.

□ 상황별 대처요령

- 등산객 : 등산시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등을 보이면서 달아나는 등 멧돼지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삼가하며,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몸을 숨길 것.

- 농업인 : 멧돼지 발견시 멧돼지를 쫓기 위한 행위를 절대 삼가하고, 군청·읍면, 112,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할 것.

- 운전자 : '야생동물 출현 안내판'이나 내비게이션의 '로드킬 안내' 등에 유의하여 멧돼지와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할 것.

- 보행자 : 멧돼지를 만나면 가까운 시설물 뒤나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고 112,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할 것.

※ 교미기간(11~1월)과 포유기(4~6월), 부상당한 경우에는 멧돼지가 흥분하여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필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사진 전국 공모

하동군은 호리병 속의 별천지, 다향의 고장, 국제슬로시티로 널리 알려진 하동의 우수한 사진을 확보해 역사·관광·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사진 전국 공모전'을 갖는다.

하동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하동지부가 주관하는 알프스 하동 사진 공모전은 사계절 촬영시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20일~11월 10일 22일간 진행되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후원한다.

공모 분야는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이자 알프스 하동을 소재로 한 미 발표작으로, 호리병 속의 별천지·산·바다·계곡 등 사계절 아름다운 하동의 자연경관을 잘 표현한 작품이나 슬로시티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슬로라이프와 관련된 사진이면 된다.

또한 문화재·사찰·유적지·전통공예·세시풍속 등 문화유적 작품, 전통문화·시장풍경·향토음식·농촌생활 등 군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문화 작품, 섬진강·지리산둘레길·갯벌·농촌체험 등 여가 활동 작품, 하동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 작품도 가능하다.

응모자격 제한이 없으며, 응모 희망자는 1인당 11×14인치 칼라 또는 흑백사진 5점 이내에서 11월 10일까지 군청 문화관광실 또는 사협 군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을 제출할 때는 사진 뒷면에 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작가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되, 컴퓨터 그래픽이나 합성 사진을 출품해서는 안 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상 1명에 상금 200만원, 은상 2명 각 100만원, 동상 3명 각 50만원, 가작 4명 각 30만원의 상금과 함께 군수상패가 수여된다.

입선 90점에 대해서는 사협 군지부장상과 상금 각 10만원이 주어지고, 응모자 전원에게는 사진 작품집이 증정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나 한국사협 홈페이지 또는 군청 문화관광실 슬로시티담당(055-880-23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국민안전방송 스마트폰에서도 시청 가능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대처요령 등을 방송물로 제작·송출한다. 그동안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는 홈페이지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 DMB 앱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에서도 시청 가능해진다.

●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으로 민간소유 시설에 대한 재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연면적 5000㎡ 이상 상인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운수, 숙박관광시설 등은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가 의무화된다.

●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고가의 수산 장비를 구입하는 어업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수산장비에 대해 장비가격의 80% 이내에서 지원된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 현재 영여자금 2.5%에서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어업인당 영여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어선원보험, 당연(의무) 가입대상 확대

영세·소형어선의 승선어선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당연(의무) 가입대상을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추진된다.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배출해역 환경 악화 및 해양투기국 불명예 해소를 위해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지금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천일염 제조 종사자를 포함한 어업인에 대해 어업직업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사업 시행

임산부 진료에 필요한 산전 검사비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산전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에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18~64세)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중 근로능력 재판정 도래자에 대해 평가용 진단서 발급 2개월 이전에 안내를 통해 발급비용을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급여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 긴급 복지지원 확대

개정 전 1인기준 1,141,970원 이었던 소득 기준을 개정후 1,218,623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지원금액을 15년 대비 2.3% 인상하며 '하동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13개 위기 사유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하동군 지역일자리 정보

○ 하동군청일자리센터(8800-2197)에 구직신청을 하면 좋은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게재기간 중에 채용이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명	근무예정지	연락처	모집직종	채용인원	학력 및 연령	급 여 (상여금)	자격 및 우대사항
태화건축사사무소	하동읍 경서대로 145-1	884-2201	건축설계사	2명	학력무관	연1,500만원 (0%포함)	차량소지자
에스티엘주식회사	청암면 삼신봉로 225	882-2175	냉난방 및 공조 공학기술자	1명	학력무관	연2,600만원 (0%포함)	인근거주자, 청년층
대륙산업개발주식회사	횡천면 경서대로 1230	884-6975	토목공무원	1명	대졸~ 석사	연4,000만원 (300%미포함)	경력5년이상,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필수)
하동우체국	하동읍 중앙로 40	882-2006	우편물집배원	1명	학력무관	연1,900만원	자동차운전/면허 원동기운전면허(필수)
주사랑어린이집	약양면 정서길 58-1	883-4476	보육교사	1명	학력무관	월190만원 (20%미포함)	보육교사
호산나리틀어린이집	적량면 적량로 107	010-2552-4476	보육교사	1명	학력무관	월190만원 (0%미포함)	보육교사
명진호	금남면 대도길 109	3806-4174	어업단순노무자	1명	학력무관	월140만원 (0%미포함)	—
㈜산다라	진교면 고이길 184-37	864-7460	덤프트럭운전원	1명	학력무관	월200만원 (200%미포함)	운전가능자, 인근거주자
㈜산다라	진교면 고이길 184-37	864-7460	경리사무원	1명	고졸	월150만원 (200%미포함)	문서작성
조태연가족로차	화개면 맥전길 60	883-1743	선별/포장원	2명	학력무관	월130만원 (0%미포함)	—
농업회사법인 (주)활천농장	북천면 우리길 33-9	882-9811	돼지사육원	4명	학력무관	연2,300만원 (0%미포함)	축산관련전공자
센터휴게 린커피전문점	약양면 평사리길 56	010-8663-8267	상품 판매원	1명	학력무관	시급6,030원	여성우대
경남여성새로 일하기지원본부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	714-1013	취업알선원	1명	학력무관	월150만원 (0%미포함)	직업상담사
대한노인요양원	적량면 경서대로 360	883-2520	사회복지사	2명	학력무관	월150만원 (0%미포함)	사회복지사
신선산오리영농조합법인	북천면 가리골길 49-19	883-5249	오리도축 및 가공작업	2명	학력무관	시급6,030원	인근거주자
부엉이박물관	약양면 평사리길 32	010-3569-5844	상점판매원	2명	학력무관	월150만원 (0%미포함)	인근거주자
하동병원	하동읍 화심길 25	880-4266	영양사	1명	고졸~ 대졸	월130만원 (0%미포함)	영양사
하동병원	하동읍 화심길 25	880-4266	약사보조업무	1명	고졸~ 대졸	월127만원 (0%미포함)	—
하동병원	하동읍 화심길 25	880-4266	병원행정사무원	1명	고졸~ 대졸	월127만원 (0%미포함)	—
하동병원	하동읍 화심길 25	880-4266	간호조무사	1명	학력무관	월150만원 (0%미포함)	간호조무사
노량실버타운	금남면 연화마을길 49-15	884-0074	물리치료사	1명	대졸	연2,500만원 (0%미포함)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량실버타운	금남면 연화마을길 49-15	884-0074	요양보호사	2명	학력무관	연2,000만원 (0%미포함)	운전가능자, 인근거주자
하동대경송림타운운영위원회	하동읍 경서대로 71-1	883-5940	아파트경비원	1명	학력무관	월147만원 (0%미포함)	장년우대
하동현대의원	하동읍 중앙로 15	882-7377	물리치료사	1명	대졸	월200만원 (0%미포함)	물리치료사
㈜우진엔텍	금성면 경제산업로 509	882-0850	화력발전소 계측제어 설비 경상장비원	1명	대졸	연2,400만원 (0%포함)	전기기사(우대) 전기산업기사(필수)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약양면 정서길 194	884-2625	마케팅사무원	1명	학력무관	월130만원 (0%미포함)	문서작성, 여성 및 인근거주자
김성철농가	금남면 제면당길 137	010-4549-7747	단순어업종사원	1명	학력무관	시급6,030원	인근거주자
DE산업	금성면 길목길 206-13	883-0406	지령이사육 하우스관리	2명	학력무관	월150만원 (0%미포함)	미니굴삭기운전 가능자
경동건설(주)	금성면 경제산업로 336	884-8009	토목시공기술자	2명	학력무관	월300만원 (300%미포함)	문서작성
하동지역자활센터	하동읍 청년회관길 13	884-6955	학교청소원	1명	학력무관	월90만원 (0%포함)	—
나성종합건설	하동읍 읍내리 184-1	042-583-6064	건축공무원	1명	학력무관	연3,600만원 (0%미포함)	건축자격증, 경력5년이상
나성종합건설	하동읍 읍내리 184-1	042-583-6064	건축품질관리사	2명	학력무관	연3,600만원 (0%미포함)	품질관리사, 초/중급, 공동주택 경력보유자
하동중앙내과, 정형외과의원	하동읍 연화길 6	883-0222	방사선사	1명	학력무관	연3,000만원 (0%미포함)	—
에스앤피주식회사	진교면 신안길 2-10	884-0785	경리사무원	1명	학력무관	월150만원 (0%포함)	전산세무회계
하동공정육묘장	횡천면 삼화실로 107-14	884-7478	납품운전원	1명	학력무관	월170만원 (150%미포함)	차량출퇴근가능한자
하동공정육묘장	횡천면 삼화실로 107-14	884-7478	묘종 이식 및 선별 종자파종 등 농업 단순노무	1명	학력무관	시급6,030원 인근거주자	—